

5 MAY
2018 * VOL.26

이달의 HRD 테마

실력중심사회를 만드는 일학습병행

정책 동향

*청년의 미래*를 돕는 3.9조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3차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
일자리위원회, 민간부문 일자리 대책 5월 발표 예정

현장 동향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협력
예비숙련기술인의 등용문 「2018 지방기능경기대회」

HRD 통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연구 동향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 관리 및 발전방안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일학습병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9호(2018.3.6.)에 근거하여
'일학습병행제'가 '일학습병행'으로 새출발합니다.



C O N T E N T S



Cover Story

기업에서는 실무형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학습근로자는 취업과 자격취득을 함께하는 일학습병행, 학벌이 아닌 실력중심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통권 제26호

발행일 2018년 5월 1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기획실 미래전략팀

전화번호 052-714-8642

구독신청 및 문의 keh4785@hrdkorea.or.kr

인쇄 효민디앤피(051-807-5100)

편집디자인 배소현

이달의 HRD 테마

4 실력중심사회를 만드는 일학습병행

정책 동향

- 8 “청년의 미래”를 돕는 3.9조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 9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 10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3차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 일자리위원회, 민간부문 일자리 대책 5월 발표 예정
- 11 해외일자리 확대를 위한 「해외일자리 TF」 구성

현장 동향

- 12 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개도국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2번째 국가 캄보디아
- 13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협력 국가자격시험 부정신고센터 개설
- 14 「청년일자리 창출 포럼」 中 中企 일자리 활성화 방안 논의 「2018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사람·노동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
- 15 예비숙련기술인의 등용문 「2018 지방기능경기대회」 2018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이색선수
- 16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 17 4차 산업혁명 선도할 훈련기관 추가 공모 2018년도 제2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정기모집 2018년도 NCS 개발 참여기관 모집

HRD 통계

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연구 동향

- 2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 관리 및 발전 방안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21 2017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생애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기관 동향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23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실력중심사회를 만드는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이란?」

-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한국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 훈련제도”
- 기업 현장에서 기업현장교사가 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공동훈련센터, 학교 등에서 이론 교육을 하여 숙련근로자로 양성하는 산업계 중심의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



「일학습병행 도입과정」

- 2013.5**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핵심과제로 선정(국정과제 73번)
- 2013.9**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계획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 2013.11** 일학습병행 51개 참여기업 최초 선정
- 2014** 사업추진 인프라 구축(폴리텍, 한기대, 공동훈련센터 등)
- 2014.3**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세부지원기준 확정
- 2014.7** 기계, 금형 직종 등 17개 산업별협의체 선정
- 2014.9** 일학습병행 홈페이지(www.bizhrd.net) 오픈
- 2015**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재학생 단계로 수혜대상 확대
- 2016~7** 사업의 양적 확산과 함께 훈련품질 제고 도모
- 2018.3.** 12,080개 기업에서 62,093명의 학습근로자 훈련 중(또는 완료)

일학습병행 운영근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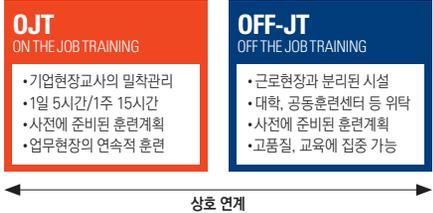
「일학습병행의 특징」

- ①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기업주도
- ② 인증된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훈련
- ③ 생산 현장의 시설·장비 활용
- ④ 평가를 통한 도제자격 부여(예정)

「일학습병행 훈련유형」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		
		산학일체형 도제	유니테크	IPP
과정 운영	-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과 학습을 병행	- 고등학교 정규과정과 기업의 훈련을 연계 - 졸업 후에도 해당 기업 근속	- 고등학교 정규과정과 전문대 정규과정, 기업의 3각 연계 - 졸업 후에도 해당 기업 근속	- 기업이 졸업 예정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대학 과정과 기업 연계
참여 대상	- 신규 입사자 - 입사 1년 이내 근로자	- 특성학교 2학년	- 특성학교 2학년	- 대학교 3, 4학년
훈련 기간	- 1년 ~ 4년	- 고교 2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고교 2학년 2학기 ~ 전문대 2학년 1학기	- 대학교 3학년 2학기 ~ 졸업 후 6개월

일학습병행 훈련방식



「기업과 일학습병행」

■ 기업에서는..

- 젊은 인재를 선점해서 장기근속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음
- 교육훈련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기업의 재교육 또는 수습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음
-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되고,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음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1순위

일학습병행 참여업체, 중기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업체, 마이스터고 ·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방위산업체

■ 기업 참여형태

	 단독기업	 공동훈련센터형
주요특징	기업 자체적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인재 육성	훈련역량 부족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인재 육성
OJT	기업	기업
Off-JT	기업	공동훈련센터

■ 참여방법

STEP 01



참여신청 및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STEP 02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사업주는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기업현장교사를 확보한 뒤 훈련과정 심의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적합여부를 인증

STEP 03



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사업주는 학생 또는 구직자를 선발하여 훈련 및 근로계약을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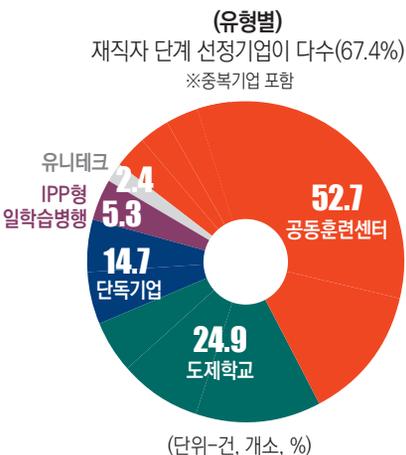
STEP 04



일학습병행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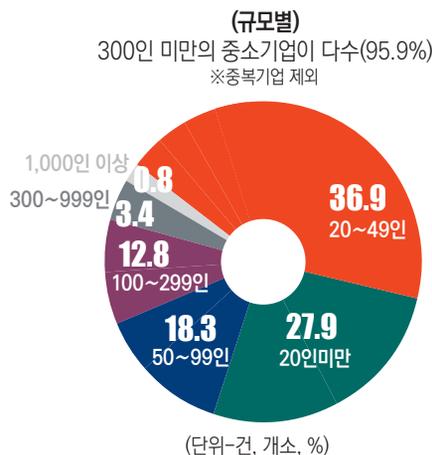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따라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 실시

■ 학습기업 현황('18.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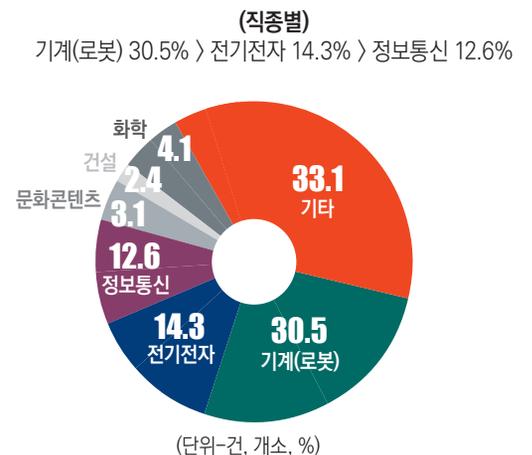


■ 9,578 ■ 4,520 ■ 2,671 ■ 967 ■ 431

※ 학위연계형(계약학과) 기업 661개소



■ 4,459 ■ 3,370 ■ 2,210 ■ 1,541 ■ 409 ■ 91



■ 3,997 ■ 3,685 ■ 1,729 ■ 1,517 ■ 493 ■ 369 ■ 290

※ NCS 24개 대분류 기준

「학습근로자와 일학습병행」

■ 학습근로자는..

- 불필요한 스펙쌓기 없이 정부가 인정한 우수기업에 빨리 취업할 수 있음
- 현장에서 일하면서 실무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음
- 교육·훈련받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음
- 체계적 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

■ 훈련 실시 학습근로자 현황('18. 3월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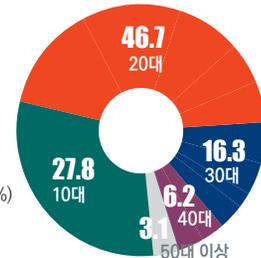


(학력별) 학습근로자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학력(49.9%)



(연령별)

* 남성 47,017명 (75.7%), 여성 15,076명 (24.3%)
 ** 청년(15~34세) 52,880명(85.2%)



■ 31,258 ■ 19,518 ■ 8,789 ■ 1,391 ■ 1,137

■ 21,002 ■ 18,017 ■ 11,033 ■ 10,002 ■ 2,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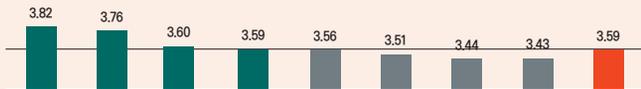
■ 28,975 ■ 17,255 ■ 10,138 ■ 3,819 ■ 1,906

「일학습병행 참여를 통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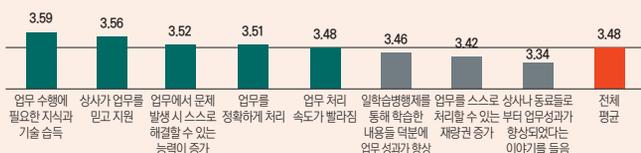
■ 직장 정착 성과('17년도 기준)

일학습병행 참여를 통한 직장 정착 성과 조사 결과 학습근로자의 경우 '동일경력 일반근로자 대비 능력수준' 5점 만점에 평균 3.59점, '직무 능력 향상 정도' 평균 3.48점, '생산성 향상 기여도' 평균 3.27점으로 조사됨

<동일경력 일반근로자 대비 능력수준>



<직무능력 향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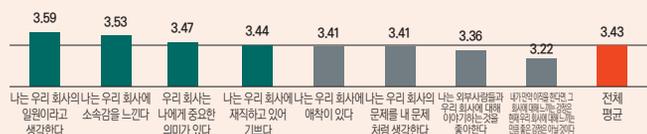
<생산성 향상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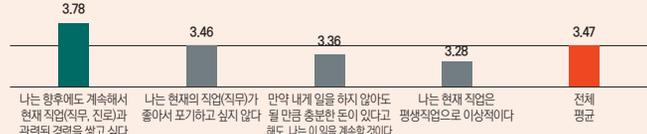
■ 직무·조직몰입도 및 생산성 향상도('17년도 기준)

학습근로자의 '조직몰입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43점, '경력몰입도' 평균 3.47점, '생산성 변화 정도' 조사 결과 2021년 103.7% 향상할 것으로 조사됨

<조직몰입도>



<경력몰입도>



<생산성* 변화 정도>



* 숙련근로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학습근로자의 생산성을 의미
 ** 1년차는 현재시점 기점으로 2년차부터는 향후 연도에 대한 예상치임

* 통계 출처 : 「2017년도 일학습병행제 성과 관리 연구·사업-5. 일학습병행제 실태조사」(20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탁연구)

HRD
칼럼

청년일자리 대책으로서 일학습병행의 자리매김을 위한 과제

한성대학교 교수
장명희
(mhjang@hansung.ac.kr)



지난 3월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수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자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청년들의 취업 관심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실질소득 지원, 대학재학 과정에서 조기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학과 해외취업 강화, 취업시장에서 학생의 진로지원을 위한 대학들의 역할 확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년들은 발표된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으로의 유인 정책에서 소득 보전만이 최선인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은 청년들에게 취업의 질을 담보한 새로운 진로가 될지, 대학의 진로서비스 질은 학생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실효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지, 이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진정 궁금해 한다.

정작 이번 대책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포함한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 차원에서의 관철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하위 정책들을 종합한 모델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일학습병행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일학습병행은 당초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니테크(Uni-Tech), IPP형 일학습병행제 등의 사업 추진으로 입직자 중심에서 재학생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3월 기준 HRD 동향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에는 12,080개의 학습기업과 62,093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 2014년도 이후 학습기업은 6.4배, 참여 학습근로자는 약 20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기업별 평균 학습근로자 규모 역시 약 2014년 1.7명에서 약 5.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의 약 96%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참여 학습근로자의 85.2%가 15~34세 청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12개 권역 기준으로 살펴본 학습기업별 평균 학습근로자 현황은 최소 3.9명(인천)에서 최고 7.2명(경북)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산업 여건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실제로 견인한 중요한 청년일자리 정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일학습병행 성과 분석에서는 양적인 확산과 함께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채용자의 구직기간 및 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 참여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일학습병행은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및 청년층 채용 문화로의 확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의 HRD.NET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률은 약 30% 수준, 학습근로자 평균계획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1.3배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학습근로자들은 중도탈락 및 훈련 종료 후에도 더 좋은 근로조건을 가진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일학습병행의 내실화와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인 가속화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학습기업은 학습기업 진입에의 애로사항, 기업특성에 맞는 훈련과정의 개발, 기업현장 교사의 선발과 양성, 학습근로자의 선발과 홍보, 현장훈련의 운영 장소와 시기, 학습근로자의 훈련 이수와 성공적 정착 등이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재학단계의 경우 재직자단계에 비해 그 규모가 1/2 미만이지만 산학 일체형도제학교, 유니테크(Uni-Tech), IPP형 일학습병행 등은 취업과 연계된 산업체 기반 교육으로의 변화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이 지속적인 청년실업 문제와 기업과 학교교육 간 미스매치 문제의 해결,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교육훈련 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 주도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개발경로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학습병행 정책 정착 단계에서 나타난 성과를 촉진하고 제약요인을 개선하며 산업계와 청년들의 소통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교육훈련체제로 전환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신규 입직자 및 재학생 중심의 청년일자리 정책이자 교육훈련제도로서 내실있는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청년의 미래”를 돕는 3.9조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직업능력개발 다수

2018년 4월 5일, 기획재정부

■ 지난 4월 5일 정부는 재난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청년일자리) 청년 고용요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고분세대 39만명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 우려
- (지역 고용위기)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GM사태 등으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는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청년일자리 추경의 방향

- “당면과제 대응”을 위한 4대 분야 중심 대책
 - ①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② 기술·생활혁신지원 등 창업활성화로 연 12만개 창업 유도
 - ③ 지역 및 사회적경제·해외취업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 ④ 선취업-후학습 장려 등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추경대응 TF」 고용위기지역 지자체·청년·중소기업 목소리 경청

2018년 4월 19일·25일,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2차 회의(4.19)와 3차 회의(4.25)가 개최됨. 이 자리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와 중소기업, 청년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

- 2차 회의에서는 군산·통영·울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8개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현장 상황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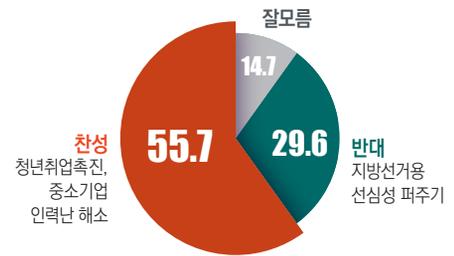
■ 고용·산업위기지역 상황

- (군산) 제조업 종사자의 47% 일자리 상실할 위기, 군산시 인구의 26%(7만명)가 생계위기, 민심동요 확산
- (통영)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 20~30% 하락, 제조업 종사자의 39%(약 1,340명) 일자리 상실위기
- (울산 동구) 자영업자 폐업*증가 지역경제 파탄위기, 인구감소 가속화 심화('13.12~'17.12, △8,863명)
* ('15~'17년, 2년간) 식품위생업 29.6%, 공중위생업 40% 감소(업체수 기준)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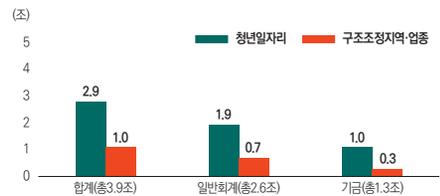
- 1.25 대통령 주재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 청년고용 현황 및 구조적 애로요인, 향후 일자리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종합 점검
- 1.30 일자리위원회 「1.25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후속대책 추진계획」
- 「청년일자리 종합대책」 추진방향 설정
- 3.15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발표됨
- 4. 5 청년일자리 해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3.15 청년일자리 대책 여론



출처: CBS (조사기관: 리얼미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청년들의 목소리

- (재직청년) 20년 이상의 노후산단 근로·정주환경이 매우 열악
- (예비창업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청년창업자들이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을 극복하고 계속 성장할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자금 지원과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설치 필요
- (취업준비생)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근무환경 격차 과다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고용위기지역 : 군산, 울산동구, 거제, 고성, 통영, 창원 진해구, 영암, 목포

2018년 4월 5일·5월 3일, 고용노동부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지원 내용

- 생계 부담 완화

- ①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 지원
* 현행 훈련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를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18.상반기)
- 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용자 한도 확대(1인당 1,000만원→2,000만원)
- ③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 용자 한도 확대

-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 ①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2단계 훈련참여 시 자부담 면제
- ②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하여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
* 대상: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 모두, 1인당 지원한도 200만원→300만원
- ③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 적극 지원
* 직업능력개발수당(1일 5,800원→7,530원), 광역구직활동비(50km→25km), 이주비 등
- ④ 군산 지역에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라북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지원

-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 ①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휴업·휴직* 지원수준 인상·한도 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
* 휴업·휴직 수당 2/3(1일 한도 6만원) → 9/10(7만원) * 무급·휴직 조건 : 3개월 이상 → 30일 이상
- ②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 납부보험료의 240% → 300%
-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원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

- ①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인건비의 1/2 지원(대규모기업은 1/3)
- ②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 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 지원
- ③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고용위기지역에 설치(군산, 통영)하고 인센티브 부여
* K-Move 스쿨 참여 시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인상(1,500만원→1,800만원)
- ④ 고용위기지역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가 지원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금

3.16 + 6개 지역 중 가장 먼저 고용위기지역 신청
한국지역 고용지원 전담팀 운영
*한국GM 및 협력업체 이직자와 가족 지원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취업특강, 복지지원, 전직지원, 금융상담 등 서비스 제공)

4.5 + 고용위기지역 지정

4.6 + 고용위기전담팀으로 확대개편
(군산시, 대한상의, 노사발전재단, 여성인력개발센터 합동)

4.12 + 군산지역 전체 실직자 및 가족 심리치유 지원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정신보건센터, 군산시청소년 상담센터 연계)

4.24 +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5월 + 고용위기극복 희망센터로 확대개편 (예정)



군산 고용노동정책 설명회('18.4.24.)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3차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

김영주 장관, 기업 현장 찾아가다니며 3.15 청년일자리 대책 직접 설명

2018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5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마인즈랩을 방문해 제3차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 개최

-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중소기업사업주 및 청년재직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

※ (1차) 3월 27일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2차) 4월 5일 - 건국대학교

■ 김영주 장관은 이 날, “㈜마인즈랩과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청년을 적극 채용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청년일자리 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AI 플랫폼 기업으로 '17년 신규 채용인원(53명)의 70%가 청년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청년일자리 대책 관련 추경안 주요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 3년형 신설(청년 600만원 납부→정부 및 기업 2,400만원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요건 완화(전체업종 확대, 지원금 1인당 667만원→900만원)

일자리위원회, 민간부문 일자리 대책 5월 발표 예정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등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2018년 4월 11일, 일자리위원회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취임 첫 간담회에서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과를 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시작 단계에 있다”며, “이르면 5월까지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서비스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부문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의미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며, 각 정부 부처별 현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에 대해 창의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달라고 주문

■ 향후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주요 계획

- 고용탄력성이 높은 서비스·IT벤처기업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혁파

■ “올 연말쯤 되면 일자리 분야 성과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임 1년 뒤에 국민들이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 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힘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해외일자리 확대를 위한 「해외일자리 TF」 구성

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해외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 집행 수행

2018년 4월 25일,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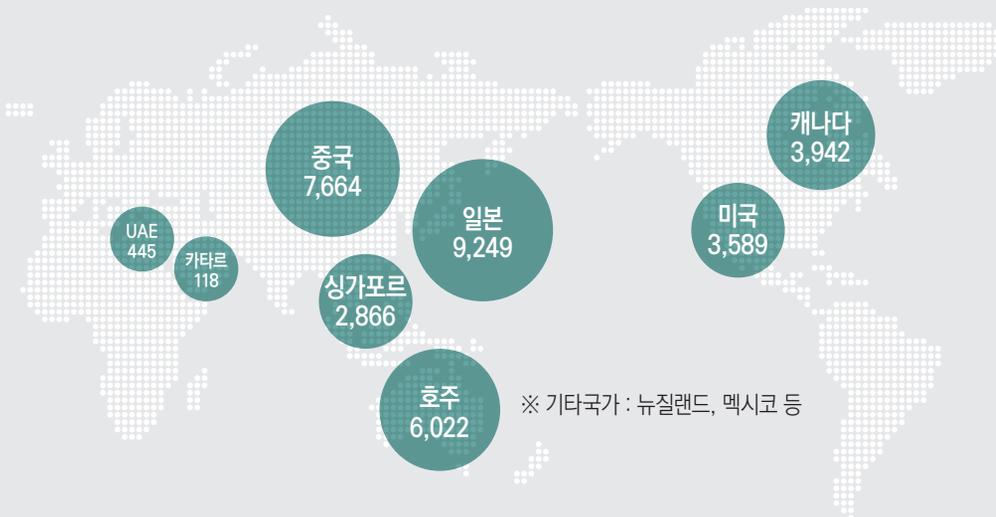
- 기획재정부는 4월 23일 청년일자리 대책(3월 15일) 중 해외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지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해외일자리 TF」를 구성하고 4월 25일 제1차 TF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예산실,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 부서의 실무자 중심으로 해외일자리 TF 구성·운영
- 고용노동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해외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예산·세제 등 지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 수행
- 기획재정부는 “해외일자리 TF를 운영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해외일 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해외진출 역량을 제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청년일자리 대책 중 해외일자리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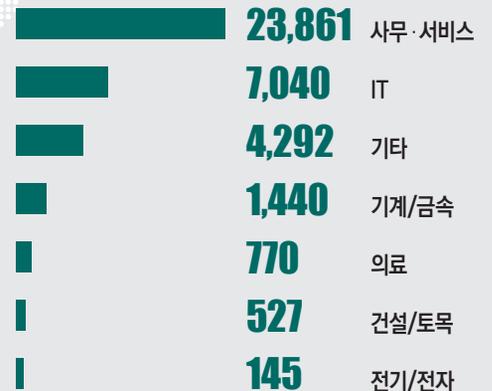


-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일자리(연봉 32백만원 이상) 취업 기회 확대
* 군산·동영에 거점 「청년센터」 설립
- 해외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연 1천만원 성공불응자 지원
- 일본·아세안 정책지원 집중(~22년, 1.8만명)
 - (일본) K-Move 스킴 인원을 일본에 집중 배정(32백명 중 40% 이상)
 - (아세안) 정해진 대학 지정 및 한국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연수와정을 확대(K-Move 스킴 20% 이상)하고, 청년·진출기업 간 연결 활성화
- 해외진출기업 취업성공형 「K-Move트랙 II」 신설
 - 베트남·우즈벡 등 수요발굴, 현지 한국기업 등 중심으로 취업처 발굴, 21년까지 2,100명 지원(취업률 90% 달성)
- 해외취업 경력의 국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도약 지원
-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권역별 거점 「청년센터」 설립
- 해외기업 DB 구축 등 해외취업 사후관리 인프라 강화

K-MOVE 한국의 청년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K-Move사업 국가별 청년진출(2008~2017, 명)



K-Move사업 직종별 청년진출(2008~2017, 명)

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2018년 4월 5일, 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남모를 고통과 좌절을 견뎌내며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고용복지+센터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 사례집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고용과 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받으며 취업에 성공하여 내일을 향해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연들이 담겨있다.

이번 사례집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인 가족의 생계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청년가장

- 고용과 복지 통합지원을 위한 사례관리협의체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 외부로 나가지 않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에게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 어머니에게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연계
- 누나는 취업성공패키지(네일아트 훈련포함) 지원
- 여동생은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취업
- 가정에 온수보일러, NH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 지게차 운전으로 취업성공

중학교 중퇴에 앞니가 없는 경력단절여성

- 고용과 복지 통합지원을 위한 사례관리협의체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 자존감, 근로의욕 고취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 자신있게 웃을 수 있도록 틀니 지원
- 아들 호적정리방법 안내와 유전자검사 지원
- 아들 치과진료와 체육활동 지원

⇒ 요양보호사로 취업성공

「개도국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 2번째 국가 캄보디아

2018년 4월 16일,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언 썸행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장관과 “한-캄보디아 워크넷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력약정 체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개도국 워크넷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캄보디아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개도국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은 '17년 신설된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무상원조 사업으로, 한국의 고용노동 IT 전산망 구축 노하우를 아시아 등 주요 개도국에 전수함은 물론,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18년) 고용서비스 정보화계획 수립 → ('19년) IT 시스템 구축 → ('20년)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협력

2018년 4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4월 18일 대한상의 본관(서울 중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공단은 ▲일학습병행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지역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한상의는 전국 18만 상공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단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할 우수 회원기업 발굴 ▲국·내외 기업 네트워크 공유 ▲공단 사업홍보를 위한 인프라 활용 등을 지원한다.



국가자격시험 부정신고센터 개설

2018년 4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관련 불공정 행위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와 조직적 부정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가자격정보사이트인 큐넷(www.q-net.or.kr)에 국가자격시험 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신고대상은 국가자격시험과 관련된 각종 부정 및 비리사항이며, 큐넷 홈페이지 내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공단 본부 능력평가국(기술자격운영팀)에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공단은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인 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파악 후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관련부서 자체처리, 감사실 이관, 경찰 수사요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부정과 비리행위는 국가자격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근절 캠페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창출 포럼」 中企 일자리 활성화 방안 논의

2018년 4월 9일, 한국폴리텍대학·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국폴리텍대학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 시점에서 국가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고용 미스매치 현상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개최사를 한 홍영표 위원장은 “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다수의 관련 전문가 참여를 통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지난 50년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꾸준히 기여해 온 폴리텍대학이 앞으로도 청년고용 창출과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18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 사람·노동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

2018년 4월 16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람·노동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제로 2018 평생직업능력개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불러올 노동환경 변화를 사람과 노동 중심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 극복할 방안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어수봉 한기대 HRD전문대학원장의 기조강연(4차 산업혁명과 평생직업능력개발)과 6개의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직업능력개발시스템 혁신과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포럼이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기영 코리아텍 총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의 확대는 산업구조와 국가시스템뿐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이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예비숙련기술인의 등용문 「2018 지방기능경기대회」

2018년 4월 4일~9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총 6,172명의 참가 선수들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주최로 「2018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다. 폴리메카닉스 등 총 50개 직종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107개 경기장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잠비아 등 10개국 20여명의 개발도상국 기능경기 관계자가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능경기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다.

예비숙련기술인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지방기능경기대회는 196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생명의 땅 전라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종별 1·2위 입상자에게는 제45회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참가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공단(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김동만 이사장은 “기능경기를 통해 미래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며 “숙련기술인들이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이색선수

용접직종 통일점 참가자	Young Skill 올림피아드 출신	국가대표를 위한 5년의 도전	후배들을 위한 새로운 길 개척
 <p>성명 : 임시현 소속 : 인천해사 고등학교 직종 : 용접</p>	 <p>성명 : 안다현 소속 : 세정상업 고등학교 직종 : 피부미용</p>	 <p>성명 : 정다운 소속 : 개인 직종 : 헤어디자이너</p>	
<p>인천해사고 임시현 양은 이번 지방 기능경기대회 용접직종의 유일한 여성 참가선수다. 임 양은 “용접기술을 꾸준히 공부해 선박에 꼭 필요한 기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p>	<p>세정상업고 안다현 양은 중학생 때 참가했던 Young Skill 올림피아드를 계기로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금융학과에 재학 중인 안 양은 “좋은 성적을 거둬 전국대회까지 나간다면 제 진로까지 바뀌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p>	<p>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정다운 양은 작년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해 아쉽게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기회를 놓쳤다. 5년째 국가대표를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정 양은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라는 목표 달성 이후 후배양성과 사회에 기여하는 숙련기술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p>	<p>성명 : 아담휘로/박건희 소속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직종 : 기계설계/CAD</p> <p>두 학생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기술고등학교인 다솜고등학교 대표선수로 충북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아직 학교에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기능반이 없는 실정에서 두 학생은 “이번 대회 참가로 후배들에게 좀 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p>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3월 기능한국인 대원인물(주) 최도현 대표

4월 기능한국인 (주)엠이티 김영삼 대표

2018년 4월 20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독자적 기술력으로 세계적 철강회사인 포스코의 모든 공정에 사용되는 나이프를 공급하고 있는 대원인물(주)의 최도현 대표를 2018년 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제133번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7,000여 고객을 대상으로 산업용 자동화장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엠이티의 김영삼 대표를 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제134번째)으로 선정하였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실력 있는 기능한국인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최근 독일에서 숙련기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IT 신기술 관련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전통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소개



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제133번째)
대원인물(주) 최도현 대표

“우리 철강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겁니다. 나이프는 이런 철강산업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이죠. 대원인물이 나이프를 제공하지 않으면 포스코 생산라인이 멈출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모든 산업의 토대가 되고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대원인물의 나이프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계 최고의 장인’이라는 마인드로 항상 연구개발하고 즐기면서 더 좋은 나이프를 만들 것입니다.”

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대원인물(주) 최도현 대표는 신기술 개발과 품질개선 노력으로 11년 연속 포스코의 우수 공급사로 선정되었으며, 일본, 독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해외시장 점유율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제134번째)
(주)엠이티 김영삼 대표

“4차 산업혁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5차, 6차 산업혁명을 새로 겪으며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마주할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저보다 더 젊은 세대에게 달렸겠지만, 그 중심에 ‘기술’이 있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들이 기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주)엠이티 김영삼 대표는 전기전자 분야 34년 경력의 엔지니어로 높은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 내로라하는 제조사를 고객으로 유치하며 지난 1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를 넘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훈련기관 추가 공모

2018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민간 선도훈련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동 사업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1월에 14개 기관 24개 과정(총 595명)을 선정하였으며, 금번 2회차 공모를 통해 30여개 과정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훈련생 모집은 빠르면 금년 7월 중순부터 진행되며, 30여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700여명의 선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2018년도 제2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정기모집

2018년 4월 9일,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일학습병행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터에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한 후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준수 요건은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해야 하고, ▲훈련 후 담당할 직무가 전문적·기술적 직무여야 하며, ▲근로자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고, ▲훈련 참여 대상자는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에서 훈련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도 NCS 개발 참여기관 모집

2018년 4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2018년도 NCS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신규 개발대상은 주거서비스지원 등 10개 직무이며, 신청 대상은 NCS 개발 직무 관련 분야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직종별 협의체 또는 관계전문기관(협회, 공제회, 관련 연구기관 등)이다.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절차

단계	심사내용
1단계	서면심사
·사업계획서 심사(서면)	
2단계 심사 대상 확정 : 최종 선정 과정 수의 약 2배수(점수제)	
2단계	현장심사
·현장심사 실시, 훈련비 지원규모 등 검토	
2단계 심사 대상 확정 : 최종 선정 과정 수의 약 2배수(점수제)	
3단계	최종심사
·지원 과정 선정 및 지원금 확정	

모집일정

신청접수	4.9~5.4(4주)
사전컨설팅	5.8~5.25(3주)
현장심사	5.28~6.8(2주)
최종발표	~6.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18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17.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총괄

-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정규직의 69.3%로 전년대비 3.0%p 상승
 - ※ 300인 미만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의 40.3%로 2.9%p 상승
- 장시간 비정규직(용역 : 188.2→182.7시간, 기간제 : 183.9→182.6시간) 근로시간 개선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 '17.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8,835원으로 3.4%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3,053원으로 8.1% 증가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3% 수준으로 전년 (66.3%)에 비해 임금차이가 3.0%p 개선

시간당 임금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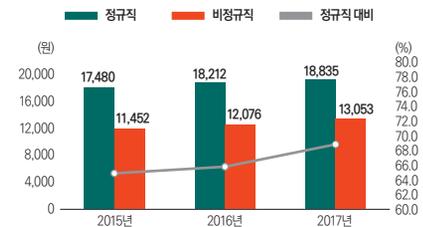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특별급여/12) ÷ 총근로시간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

(단위: 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전체	15,978 (-4.3)	16,709 (4.6)	17,381 (4.0)
정규직	17,480 (-5.1)	18,212 (4.2)	18,835 (3.4)
비정규직	11,452 (-0.1)	12,076 (5.4)	13,053 (8.1) <66.3>
기간제근로자	11,575 (-2.5)	12,028 (3.9)	12,878 (7.1)
단시간근로자	11,524 (-0.7)	11,270 (-2.2)	12,242 (8.6)
일일근로자	13,158 (4.5)	14,905 (13.3)	15,804 (6.0)
파견근로자	10,727 (5.3)	11,451 (6.7)	11,670 (1.9)
용역근로자	8,589 (-2.3)	9,064 (5.5)	10,492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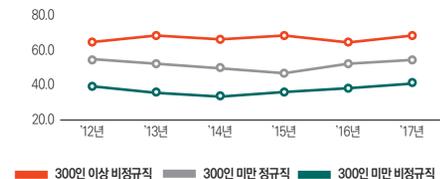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17년 사업체규모별 시간당 임금 수준(%)



최근 5년간 사업체규모별 시간당 임금 수준(%)



* () 전년대비 증감률, <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

- '17.6월 기준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근로자는 40.3% 수준으로 전년대비 2.9%p 상승
- 300인 미만 사업체의 정규직은 54.3% 수준으로 전년대비 1.7%p 상승
- 최근 5년간('12~'17년) 추이를 보면,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이상 비정규직(2.0%p↑), 300인 미만 비정규직(1.9%p↑)은 차이가 축소되었으나, 300인 미만 정규직(2.1%p↓)은 차이가 확대되었음

■ 월평균 근로시간

- '17.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전년 동월(171.1시간) 대비 2.6시간 감소
-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1.6시간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
-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2.7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2.6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82.1시간)는 가장 짧음
- 전년과 비교하면, 용역근로자(-5.5시간), 일일근로자(-3.1시간), 기간제근로자(-1.3시간), 단시간근로자(-0.5시간) 순으로 줄었으나, 파견근로자는 소폭(3.9시간) 증가

총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내 실제 근로한 시간 + 초과 근로시간

장시간 비정규직 근로시간 개선



〈 고용형태별 월평균 총실근로시간 현황 〉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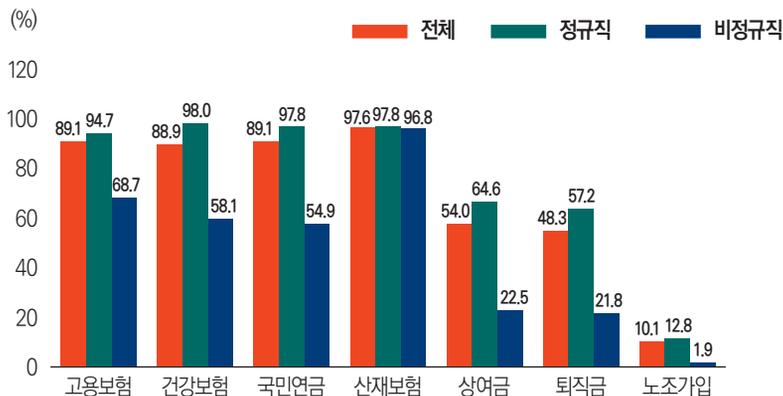
구 분	'15년	'16년	'17년
전체	173.5 (8.0)	171.1 (-2.4)	168.5 (-2.6)
정규직	187.4 (9.7)	184.7 (-2.7)	183.1 (-1.6)
비정규직	131.6 (3.3)	129.3 (-2.3)	125.1 (-4.2)
기간제근로자	184.9 (6.8)	183.9 (-1.0)	182.6 (-1.3)
단시간근로자	83.9 (7.1)	82.6 (-1.3)	82.1 (-0.5)
일일근로자	100.3 (-0.8)	97.1 (-3.3)	93.9 (-3.1)
파견근로자	176.6 (3.5)	173.8 (-2.8)	177.6 (3.9)
용역근로자	187.1 (0.7)	188.2 (1.1)	182.7 (-5.5)

* () 전년대비 증감, 0.1시간은 6분을 의미함

■ 사회보험 가입률

- '17.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5% 이상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
-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대비 하락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부가급부 적용률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 관리 및 발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연구자 : 박동열 외 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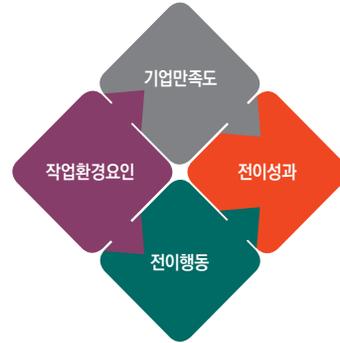
■ 목적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Kirkpatrick의 현업 적용도 모형을 활용한 중간점검 조사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함
- SWOT 분석을 통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화 방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계층화 분석법을 통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지표별 우선순위와 적절성을 산출·성과분석에 활용함
-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통하여 전월대비 변동현황, 지역별, 차수별, 참여유형별, 학생 및 기업 현황 이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의 현업적용도 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함

도제생의 현업적용도 구조모형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2017
 연구자 : 이승렬 외 5인



■ 목적

- 정부의 재정지출 일자리분야 사업을 포함한 청년층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 평가보고서와 논문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됨

■ 주요내용

-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관련 정책 및 예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함
-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급여, 청년수당·배당으로 구분하여 심층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함
- 2019~2022년 4년간에 걸쳐 수행하게 될 정책 프로그램별 평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직접일자리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 등
고용서비스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창업지원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등

2017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연구자 : 이동임 외 6인

■ 목적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결과,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자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됨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보고자료'로 활용됨

■ 주요내용

- 과정평가형 자격이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을 하기 위한 '성과 분석틀'을 제시함
-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FGI 실시 결과를 분석함
- 성과분석틀에 기반한 과정평가형 자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연구내용과 분석틀

내용	
1. 이론적 논의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목적과 추진경과 - 주요국의 과정평가형 자격 시사점 - 성과분석틀 논의	2.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과정 분석 - 과정 모니터링 - 설문조사 및 FGI - 과정운영 진단
3.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결과 분석 - FGI/전문가협의회 - 설문조사	4.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합 성과분석 - 문제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생애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7

연구자 : 김은석 외 7인

■ 목적

- 경력개발 이슈와 관련된 환경 및 현황을 진단하고 지원체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됨

■ 주요내용

- 경력개발 관련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기술변화 측면에서 환경변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주요 정책지원 현황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생애 경력개발 기본 계획(안)'을 수립·제시함



비전

일을 통한 국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추진전략

- 1.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생애경력개발 공고화
- 2. 전달체계**
경력개발 전달체계 내실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3. 평가·질관리**
생애 경력개발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한 성과 제고
- 4. 정보인프라**
경력개발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한 맞춤 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
- 5. 법·제도**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기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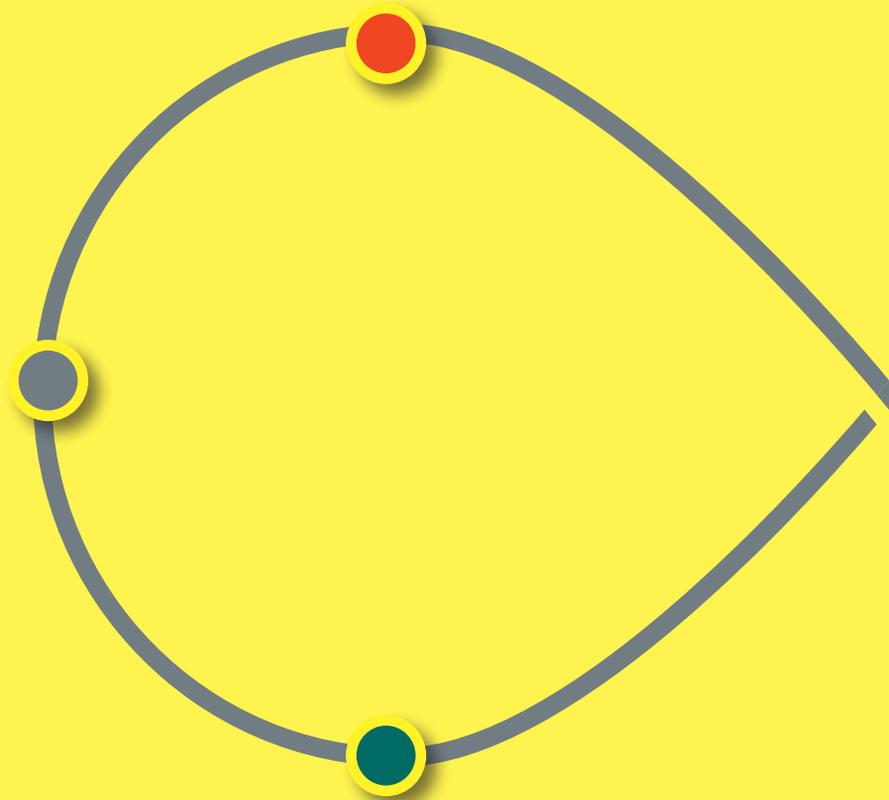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신청기간 : 3.27~4.30)
- 실업자 직업훈련 취·창업 성공 공모전 수기집 발간(4.6)
- 2018년 직업능력유공 포상신청 공고(접수기간 : 4.9~4.30)
- 「이달의 기능한국인」 '3, 4월' 선정자 시상식 개최(4.20)
 - 3월 기능한국인(대원인물㈜ 최도현 대표), 4월 기능한국인(㈜엠이티 김영삼 대표) 시상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기관 2018년 추가 공모(공모기간 : 4.23~5.4)



- 2018년도 제2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정기모집 공고 (접수기간 : 4.9~5.4)
- 2018년 NCS 개발 참여기관 모집 공고(접수기간 : ~5.15)
- 2018년 NCS 개선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접수기간 : ~5.15)
-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공고(접수기간 : ~5.23)



- 고용패널학술대회 개최(5.23, 서울 전경련회관)
-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여(5.24~25, 코엑스)
- 제7회 모바일브랜드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4.23)
 - 매일경제 주관

2018
05



한국폴리텍대학

www.kopo.ac.kr

- 한국오므론제어기기(주)와 MOU 체결(4.23)
- 전국 캠퍼스 학사 종합 모니터링(5월 중)
- 노·사 전문가 협의회 4차 회의(5.2)
- 국방분야 중소기업 교육훈련 실무위원회(5.3)
- 자산맞 사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5.4)
- 2019학년도 P-TECH 운영 권역별 설명회(5.14~5.31)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실무담당자 교육(5.17~5.18)
- 법인 교직원 행동강령 교육(5.28)



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www.koreatech.ac.kr

- 제11회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 개최(4.24~4.27)
- 이집트 Assiut 대학 총장단 방문(4.24)
- 나우리사랑방 간담회(4.24, 5.3)
- 한경 밀레니엄 포럼 참석(4.25)
- 2018 UCN PRESIDENT SUMMIT 3차 콘퍼런스 참석(4.26)
- 코리아텍 한맥제(5.9~5.11)
- 코리아텍 학부모 초청의 날 행사(5.9)
- 2018 코리아텍 직업능력개발 포럼(5.10)
- 파라과이 독립기념 207주년 참석(5.18)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2018년도(2회차)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기관 공모
 -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4.23 ~ 5.4
 - 서면심사 : 5.9~5.25, 결과발표 : 5.28(예정)
 - 현장심사 : 5.31~6.20(예정)
 - PT심사 발표제료 제출일 : 6.22(예정)
 - PT심사 및 최종심의 : 6.26(예정)
- 2018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 신청접수 4.23~5.4 / 수정보완 5.8~5.10
- 올바른 훈련문화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 시행 (5월 중순)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2017년 운영 사례 발표회 및 계획서 컨설팅 워크숍 개최(4.18)
- 2018년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지원 워크숍 개최(4.21)
- 2차 미래진로교육포럼 개최(4.25)
-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4.28)
- NCS 학습모듈 공동 개발진 1차 연수 실시(5.3)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 전문가 연수 실시(5.10~5.11)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교육 담당자 연수 실시(5.16)
- 제4차 일학습병행제 질적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5.23)
-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컨설턴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5.26)

내;일을 그리다

2017 내일배움카드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수기공모전 우수작품집

